

인천광역시립극단 2006년 공연실적 총괄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5건 / 44회			13,697명
2006. 2. 10-14 대공연장 (6회)	심청왕후	총감독 / 정 진 연출 / 이종훈 극본 / 오성근 작곡 / 김선하 지휘 / 이경구 음악감독 / 윤학원 무용감독 / 한명옥 심청왕후 / 김원정 이수진 심봉사 / 이범우 괘씨부인 / 백혜숙 뽕덕이네 / 정순미 임금 / 김종훈 도창 / 박종성	- 제1막 - 제1장 / 서곡 제2장 / 비나이다 / 태몽 제3장 / 귀여운 내 딸아 / 유언의 노래 / 북망산천 제4장 / 입을 청산에 묻고 / 우리 아기 젖 좀 주오 제5장 / 품파는 노래 제6장 / 심봉사 딸 마중 나간다 제7장 / 비나이다 제8장 / 처녀삽니다 / 아버님 떠날 준비 / 눈을 팔아 너를 산들 / 심청아 가지 마라 제9장 / 뱃노래 / 아이고 아버지 / 바다여 파도여 - 제2막 - 제1장 / 용궁의 노래 / 내 딸아 / 어여쁘다 심낭자 제2장 / 날 데려가 다오 / 건너 마을 한 여자 / 혼례 잔치 벌이세 제3장 / 천상의 조화 / 임금님께 문안이요 / 그대였던가요 제4장 / 봉사들의 노래 / 우리가 눈을 볼 양이면 제5장 / 아버님 어디 계시오 / 딸 팔아 먹은 죄 / 얼씨구나, 절씨구나	7,092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06. 5. 19-28 소공연장 (9회)</p>	<p>제42회 정기공연 “여름안개”</p>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상임)</p> <p>이현순, 하소정 최은지 (객원)</p>	<p>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외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의 삶을 관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를 통해 고령화 현상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거나 단순히 노인들의 삶의 애환을 그리려하거나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진보와 보수, 개혁과 수구, 여름과 겨울이라는 이분법의 시각으로 재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대를 넘어선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죽음의 무의식에 대한 성찰을 그려내며, 삶과 죽음을 환기시킨다.</p> <p>이러한 주제 의식은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인 70대의 노인들을 통해 나타난다. 이들은 사회에서 낙오되어 퇴물이 된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다. 비록 사회에서 동떨어진 실버타운이란 공간에서 살고 있으나 오히려 젊은이들 못지않게 자신들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물들이다. 청소아줌마에게 구애하는 박 노인, 자신의 작품을 무대화하고 싶은 강 노인, 모임이나 강의를 통해 사회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오 교수의 모습은 노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뒤집는다.</p> <p>또한 실버타운은 막연히 죽음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체념과 절망의 공간으로 보지 않고 주체인 노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의 호기심부터 시작하여 젊은 세대의 사랑과 욕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며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되 누구나 갖게 되는 허명(虛名)에의 집착, 불가해한 삶의 비의성(秘意性), 죽음의 불가역성 등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다. 삶과 죽음, 욕망과 좌절,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허무, 늙음과 젊음, 웃음과 울음, 기쁨과 슬픔, 놀이의 활력과 정적인 무기력, 산자와 죽은 자 등 인생의 대비되는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룬다.</p>	<p>857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06. 9. 22-10. 1 소공연장 (11회)</p>	<p>제43회 정기공연 “시 련”</p>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p>	<p><시련>은 메카시즘적인 마녀사냥에 맞서 개인의 명예나 존재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끝내 처형대에 오르는 순교자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아서 밀러는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과 1600년대의 마녀재판을 결합하여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집단적 권력에 의해 희생된 개인의 양심과 인권의 실상을 낱알이 고발한다. 세일럼의 마녀재판을 당시의 미국현실에 교묘하게 결합하여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비판을 가함으로써 사건이 일어난 특정 시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초월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악(惡)’과 ‘선(善)’의 보편성과 영원성을 제시한다.</p> <p><시련>의 역사성에 대해 밀러는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역사상의 역할과 유사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대로 시대나 상황에 따라 빌미나 명분은 달라지더라도 집단과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광기와 희생,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끈질긴 투쟁은 끊임없이 생산되며 반복된다. 이 작품은 정의라는 허울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조차 허위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비양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정의와 부정한 사회, 혹은 집단에 맞서는 소시민의 도덕적 용기는 진실을 발견하게 한다. <시련>은 거대한 ‘악’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선’의 진실을 메시지로 전하는 작품이다.</p>	<p>1,637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06. 11. 24-12. 3 소공연장 (11회)</p>	<p>제44회 정기공연 “김장하는 날”</p>	<p>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서국현,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강성숙, 정순미, 최지연</p>	<p>「김장하는 날」은 호남지방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짙은 휴머니즘이 묻어나는 향토적인 작품이다. 세파에 부대끼면서도 훈훈한 인간미를 지켜나가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이자 잃어버린 우리 고향과 이웃들의 삶을 경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때문에 「김장하는 날」은 보통 사람들이 안고 있는 애환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가족극이다.</p> <p>「김장하는 날」은 이웃사람들끼리 품앗이로 김장을 담그는 과정에서 가족과 이웃의 애환을 담백하게 풀어낸 창작극으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족과 이웃간의 소중한 사랑을 김장김치처럼 맛깔스럽게 보여준다.</p> <p>「김장하는 날」은 걸쭉한 호남사투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가족극 형태의 작품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p>	<p>2,971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6. 12. 14(목) 인천구치소	작은 행복으로의 초대 “청 혼”	차광영, 김현준, 김문정	<p><청혼>은 철희의 초창기 단막극으로 작품의 구성이나 인물의 설정 등이 상당히 치밀하게 잘 짜인 희극작품이다.</p> <p><청혼>은 한 청년이 같은 마을에 사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벌어지는 해프닝을 경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청혼을 하기 위해 여인의 집에 들른 청년은 여인의 아버지를 만나 어렵게 자신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정작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말이 와전되면서 청혼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일이 다툼으로 확산되고, 결국에는 결혼도 하기 전에 부부싸움부터 하게 되는 데....</p> <p>시립극단에서 준비한 <청혼>은 원작의 이야기 전개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는 관람이 가능한 공연이다.</p>	150명
2006. 12. 15(금) 남동장애인복지관				130명
2006. 12. 16(토) 예림원				110명
2006. 12. 17(일) 간석2동 성당				80명
2006. 12. 18(월) 인천여성문화회관				350명
2006. 12. 20(수) 인정재활원				120명
2006. 12. 21(목) 학익감리교회				200명